

# 이범호 홈런 '펑펑' 호랑이 화력쇼

KIA 나지완·최원준 홈런 등 16안타·양현종 7이닝 1실점...kt에 14-1 대승



예열을 끝낸 '호랑이 군단'이 방망이가 화력쇼를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이범호의 멀티 홈런 포함 장단 16안타로 14-1 대승을 거뒀다. 2017시즌의 주인공 양현종은 2018시즌 첫 등판에서 7이닝 4피안타 6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힘'으로 전날 4-5 역전패를 설욕한 KIA였다.

전날 12개의 안타를 가지고 4점을 만드는데 그쳤던 KIA가 1회부터 무력시위에 나섰다.

1사에서 2번 타자 바나디나가 우전안타로 공세를 시작했다. 김주찬이 좌중간을 가르며 1-0을 만들었고, 최형우가 볼넷을 고르며 분위기를 띄웠다. 나지완과 안치홍의 연속 안타에 이어 이범호가 좌측 담장을 넘기면서 KIA는 1회에 단 6점을 뽑아냈다.

2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중전안타를 기록한 이범기가 최형우의 적시타 때 홈을 밟으며 7-0이 됐다.

잠잠하던 방망이가 6회 다시 불을 뿜었다. 이범기와 바나디나의 연속 안타로 출발한 6회 무사 1·3루에서 김주찬이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렸다. 2사 3루에서는 나지완이 좌측 담장을 넘기며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8회 1사 2루에서

### ◇25일 광주경기

kt	000 010 000	1
610 003 04X		14
KIA		

△ 승리투수= 양현종(1승) △ 패전투수= 주권(1패) △ 홈런= 황재균 1호(5회1점·kt) 이범호 1·2호(1회3점, 8회2점), 나지완 1호(6회2점), 최원준 1호(8회2점·이상 KIA)

### ◇24일 광주경기

kt	001 003 100	5
200 002 000		4
KIA		

△ 승리투수= 심재민(1승) △ 세이브투수= 엄상백(1세이브) △ 패전투수= 김윤동(1패) △ 홈런= 강백호 1호(3회1점), 로하스 1·2호(6회1점, 7회1점·이상 kt)

최형우의 대타로 나온 최원준이 우월 투런포를 터트리면서 생애 첫 대타 홈런을 기록했고, 이범호는 2사 1루에서 중앙 담장을 넘기면서 멀티 홈런과 5타점을 장식했다.

타선이 일찍 가동되면서 양현종의 공에도 힘이 실렸다.

양현종은 첫 타자 정현에게 중전안타를 내줬지만 좌익수 플라이와 2루수 플라이 그리고 3루수 땅볼로 1회를 끝냈다. 4회까지 삼자범퇴를 이어간 양현종은 5회 황재균에게 솔로포를 맞으면서 이날 유일한 실

점을 기록했다.

6회도 삼자범퇴로 지운 양현종은 수비진의 도움 속에 7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았다. 첫 타자 로하스에 좌전안타를 맞으며 시작한 7회, 이범기가 윤석민의 깊숙한 타구를 플라이로 만들었다. 황재균의 내야안타 뒤에는 김선빈과 안치홍 '키스톤 콤비'의 더블 플레이가 이어졌다.

이후 군 전역 후 복귀전에 나선 문경찬과 프로 데뷔 무대에 오른 고졸 2년 차 유승철이 실점 없이 8·9회를 지키면서 경기는 14-1 대승으로 마무리됐다.

멀티 홈런으로 5타점을 책임진 이범호는 "타이밍이 늦어서 연습할 때 이 부분을 신경 썼다.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자책을 많이 했다. 1회 1~2점을 내는 데 역할을 했으면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못했다"며 "바깥에서 우승 후보라고 많이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되는데 부담을 줄이고 우리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첫 등판에서 승을 챙긴 양현종은 "힘 있는 타자들이 많아서 직구를 강하게 던질 수 있는나가 관건이라고 생각했다"며 "직구의 힘이 좋았다. 타선이 도와줘서 부담 없이 던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우승이라는) 좋은 기억을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며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다양한 변화구를 던져봤는데 변화구는 더 보완해야 할 것 같다. 오늘 홈런을 맞은 타구도 그렇고 변화구에 안타를 많이 맞았다. 변화구에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막 시리즈가 열린 24·25일 챔피언스필드의 2만500석이 모두 팔리면서 이를 연속 매진이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kt위즈와의 2차전에서 KIA 공격이던 8회말 2사 1루 때 이범호가 2점 홈런을 때린 후 그라운드를 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대타 홈런 최원준 "고교 때 강백호와 투수·타자 같이 했죠"

### 덕아웃 T 특독

▲힘 좋더라고요= 주말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kt의 개막시리즈에서 슈퍼 루키가 탄생했다. 고졸 루키 사상 첫 개막전 데뷔 타석 홈런이라는 기록을 작성한 kt의 강백호. 헤드와 배터리를 이취 역사적인 홈런을 지켜봐왔던 포수 김민식은 "뒤에서 맞아서 플라이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힘이 좋더라"고 말했다. 아쉽게 패배를 지켜보아야 했지만 겨우내 타격에 공을 들인 김민식의 감은 나쁘지 않다. 개막 시리즈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한 김민식은 "타격감이 나쁘지 않다. 첫 경기는 어렵지만 뒤에 경기가 많이 남아있다. 우리 선수들 힘이 있으니까 점점 좋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저는 변화구 투수였어요= 서울고 동문들의 홈런쇼였다. 24일 개막전에서는 후배 강백호가 손맛을 봤고 25일에는 2년 선배 최원준이 대타 홈런을 날리고 그라운

드를 돌았다. 서울고를 대표했던 두 강타자가 라이벌이 되어 프로에서 재회를 했던 주말, 최원준은 "(강)백호는 타고난 선수다. 야구도 잘했지만 예의도 바르고 열심히 했다. 둘이 타자도 하고 투수도 했었다"고 말했다. 어떤 유형의 투수였느냐는 질문에 최원준은 "나는 변화구 투수였다. 스피드에 자신이 없어서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을 던졌다"고 웃었다.

▲얼마나 체내려고= 김기태 감독을 올리고 웃게 한 1회였다. 김 감독은 25일 경기 전 "1회 같은 경우 얼마나 체내려가 했었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KIA는 개막전이었던 24일 1회 이범기의 안타와 김주찬의 희생번트에 이어 6번 타자 안치홍까지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지난해 보여줬던 무시무시한 공격이 개막 첫 경기 1회부터 펼쳐지는 것 같았지만 이범호의 삼진과 김민식의 중견수 플라이로 2점을 만드는 데 그쳤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던 1회. 결과는 4-5 역전패였다. 하지만 25일 1회는 달랐다. 전날 1사 만루에서 삼진

으로 몰라냈던 이범호가 스리런을 터트리는 등 KIA는 1회에 단 6점을 뽑으면서 일찍 승부를 결정지었다.

▲그냥 재미있었어요= 개막전이 신난 유승철이다.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투수 유승철은 고졸 2년 차 막내다. 막내라서 물 심부름, 표 심부름 등 할 일은 많지만 표정은 밝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는 개막내의 이야기였다. 유승철은 "(24일) 경기에 나가지 않았지만 경기장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재미있었다. 사람들도 많이 신이 났었다"고 웃었다. 그리고 이날 유승철은 14-1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올라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전날 멀티 홈런을 기록한 kt의 외국인 타자 로하스를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잡은 유승철은 윤석민에게 좌중간 2루타를 허용했지만, 황재균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대타 김동욱을 1루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데뷔전을 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장식했다. /김여울기자 wool@

### 개막전 화제의 시구자

## "양현종 선수에게 칭찬받았어요"

### '한류스타' 동방신기 유노윤호

"양현종 선수에게 칭찬받았어요!" '한류스타'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고향에서 생애 첫 시구에 나섰다. 유노윤호는 지난 2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kt의 2018시즌 개막전 시구자로 고향 광주를 찾았다.

KIA 에이스 양현종이 '일일 코치'로 변신해 유노윤호의 시구 연습을 도왔다. '대투수'의 시구 지도를 받은 '대스타'는 연습이 끝난 뒤 "양현종 선수에게 칭찬을 받았다"며 활짝 웃었다. 자신감을 얻은 그는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질 생각이다. 실렌다"며 마운드까지 올라가 공을 던졌다.

의욕이 넘치면서 연습 때보다 공이 포수 한창 위로 비껴나기는 했지만 유노윤호는 관람석을 가득 채운 야구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유노윤호는 "시구를 하게 돼서 너무 좋다. 고향에 와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이다"며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시구 지도에 나선 양현종에게도 영광의 시간이었다. 유노윤호는 우리나라를 넘어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연습이 끝난 뒤 "양현종 선수에게 칭찬을 받았다"며 활짝 웃었다. 자신감을 얻은 그는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질 생각이다. 실렌다"며 마운드까지 올라가 공을 던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시구 영광...KIA 김기태 감독님 팬이죠"

### 올림픽 쇼트트랙 금 김아랑

"떨려서 잘 못 했어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kt와의 경기에서 시구를 맡았다.

전주 출신인 그는 시구가 끝난 뒤 "우리 지역팀에서 시구했다는 자체가 영광이다. KIA는 우승팀이기도 하다"며 활짝 웃었다. 김아랑에게는 올림픽만큼 긴장되고 떨린 순간이었다.

김아랑은 "시구는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실수할까 봐 걱정했다. 시구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질해야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떨려서 잘 못 했다. 연습 때는 한 두 개

들어갔는데"라면서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챔피언스필드 방문은 처음이지만 지인들과 자주 잠실구장을 찾는다는 김아랑은 "프로야구팬이다"며 "KIA에서는 김기태 감독님을 좋아한다. '동행'이라는 말이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 선물도 드렸는데 많이 응원해주시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아랑은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김기태 감독에게 선물했다. 김 감독은 사인볼과 건강 목걸이로 화답했다.

모처럼 트랙을 벗어나 야구장 나들이에 나선 그는 다시 치열한 경쟁 무대로 뛰어들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